

建築家の 現在像

田中清原著

(一) 왜 건축가를 지망하는가?

현재 이미 일가를 이루고 있는 선배 건축가들의 말을 들어보면 건축가가 된 동기기는 참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성한 건축가일수록 그 길을 선택하게 된 최초의 동기부터가 뚜렷한 인식 위에 서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것은 또한 그만큼 그분들의 목적설정이 명확했을 뿐만 아니라 건축에 대한 관심과 동경심의 농도가 짙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그 밖에, 일부 현역 건축가들도 포함해서 가장 많은 회답은 「설계하는 것이 좋아서 이 길을 선택하게 됐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또한 그 반면으로는 「진실하게 좋은 일을 해 보려고 하면 그럴수록 직업으로서의 냉엄함이 뼈에 사무친다」고 하는 한탄의 소리도 흔히 들을 수 있다.

건축가로서의 기쁨, 그 매력과 건축가로서의 냉엄함과 쓰라림이 뒤섞인 세계라고나 할까.

어느 직업을 선택한다고 해도 같은 말을 할 수 있겠지만, 특히 건축가로서 뜻을 세우려거든 막중한 판단과 자기분석이 있어야 할 것이다.

□ 건축가를 지망한 동기

1. 건축하는 것이 좋아서 자기 손으로 직접 설계를 해보고 싶었다.
2. 사실은 화가가 되고 싶었지만 직업적으로 자신이 서지 않아서 차선책으로서 건축가를 지망했다.
3. 아버지 또는 친근자가 건축에 관계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히 건축가를 동경해 왔다.
4. 예술, 기술, 제작이라는 종합적인 일에 깊은 흥미를 느꼈다.
5. 어릴 때부터 수리적인 공부 좋아서 이론적이고 건설적인 일을 해보고 싶었다.
6. 상인이거나 일반적인 셀러리맨이 되고 싶지가 않아서 건축을 선택했다. 전문적인 공부를 하는 동안에 자기가 스스로

꼭 창작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7. 건설회사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같은 설계이긴 하지만 「뭔가가 다르다」라고 하는 저항감을 느낀 바 있어 건축가로 방향전환을 했다.

8. 관공서에 들어갔으나 자기의 지향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건축가로 방향전환을 했다.

대략 이상과 같은 동기가 많다. 즉, 본인의 지향이나 자각에 의한 것, 출생하면서부터 주위환경에 의한 자극, 전문적인 학교에 들어가고 나서의 선택으로 분류가 되는데, 일단 직장에 들어간 후에 강한 인식과 동경에 의해서 방향전환을 하는 사례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건축가로서 해야 할 일은 전문적인 지식만이 아니라 상당한 기술과 경험에 의한 수련이 필요하다. 때문에 대학을 졸업한다고 해도 당장에 독립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보통 10년 쯤의 실무적인 깊은 연구가 필요 불가결한 것이다.

그 직장의 환경여하에 따라서 본인의 건축가로서의 특질이 커다란 영향이 미치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스승, 좋은 직장」이란 말이 있다. (「좋은 직장」이란 말은 초임급(給)의 많고적고나, 사무소의 크고작음을 말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그리고 지명도(知名度)와도 반드시 일치하는 것도 아니다)

「좋은 스승, 좋은 직장」에서 공부하는 것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으로는 본인의 건축에 대한 정열 탐구자로서의 마음가짐, 공부하는 방법 등을 들 수 있다.

이상에서 말한 여러가지가 상승 효과를 작용해서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다음은 전문학부를 나온 후의 중간과정을 분류해 보자.

□ 독립 전의 직장과 일반적 특성

설계사무소에서 자란 건축가 및 독립

자, 대학교수, 강사 등에서 독립한 사람, 건설회사 설계부에서 독립한 사람.

이 밖에 아버지가 창설한 사무소를 계승하는 건축가도 있긴 하지만 「건축가」로서의 능력 그 자체가 「일신전속적」인 재능이기 때문에 그 수가 많지는 않다.

또한 일찍부터 건축가인 아버지가 고생하는 것을 보아 왔기 때문에 도리어 다른 직업을 선택해버리는 일도 있다.

건축가가 되기 위한 일반적인 코오스로서는 전문학부를 나온 뒤 알맞다고 생각되는 설계사무소에 들어가서 실무를 공부하는 일일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직장환경, 연구자료의 정비, 스승 또는 선배의 지도, 동료끼리 서로 돕고 격려하면서 진보 향상되는 점에서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유의할 것은 좋은 나쁜든 스승 선배들의 영향을 많이 받기 쉬운 상황 아래 놓이게 되는 것이니 자기 자신의 관점을 명확하게 가져야 한다.

시공업자에 대한 지도업무, 감리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보통 4년~5년의 설계실무의 경험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감리업무에는 건축주의 대리인이라는 입장도 겸하게 되니까 계약에 관한 지식——예를 들면 민법, 상법, 건축사법, 건설업법——등을 이해하는 능력도 갖추어야 한다.

또한 건설에 대한 모든 재료, 제품, 공임 등의 코오스트를 알고 재료, 제품의 표준치수나 재질특성에 통달하지 못할 것 같으면 저렴하고 질이 좋은 이른바 「경제설계」는 불가능하다.

이와같이 건축가는 「디자인」 「코오스트」 「타임」 세 가지의 방침을 확정해서 건축주의 목적에 응하면서 한편으로는 건축의 필수조건인 「기능성」, 「쾌적성」, 「안정성」, 「내구성」의 4대요소를 만족시켜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능력을 「일단」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10년 정도의 실무경험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현행의 「건축사법」에 의한 1급건축사의 국가자격을 얻었다 해도 3년이나 5년 쯤의 경험으로서는 하나의 건축가로서 문제점이 존재한다고 하겠다.

Professor architect의 설계활동에 있어서는 그 입장이나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1. 우수한 재능에 대한 촉망으로 설계를 의뢰받는 경우
- 지도성, 계몽성이 있는 작품을 기대할 수 있다.

2. 의뢰받는 측의 경제적인 목적으로 수탁하는 경우

독자의 사무소 조직을 갖고 있으면 특히 문제될 것은 없겠지만 연구실의 학생들을 참화(參畧)시켜서 설계를 하는 경우는 자칫하면 작품이 실험적, 시작품적으로 될 수도 있으며 목적 자체가 아르바이트적으로 되어버릴 수도 있다. 또 시공성이나 공사비계획성이 불충분하게 되는 사례도 있을 수 있다. 의뢰를 하는 건축주도 원래의 목적이 실험적, 연구개발을 목표로 하는 것이라면 이점은 있겠지만 일중 위험성을 작오해야 할 것이다.

본래 설계사무소의 운영에 있어서나, 교육, 연구자의 입장에 있어서나 이것을 진지하게 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양다리 걸친」 견적으로서서는 어느 한쪽이, 혹은 양쪽이 모두 영성하게 돼버릴 위험성이 다분히 있는 것이다.

또, 썸 보수를 주고 아르바이트 학생을 이용해서 덤핑류의 수수(본인의 참여는 그것으로 보상되기 때문에 결코 덤핑 행위라고 배정하지는 않겠지만)를 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다.

3. 별도의 이점으로 자신이 주관하는 설계사무소로 우수한 제자를 스카우트하는 수도 있다.

이 점은 서로 이해한 다음에 성립하는 것이니까 당연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4. 설계업무만으로서 경제적으로 곤란해서 겸업하는 경우도 있다.

지금과 같은 현실에서 건축가의 경제적 처지를 고려해 볼 때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로써 본인으로서 하나의 생활 방법이기도 한 것이니까 이리쯤 저리쯤 비판할 것만은 아니다. 또 그러한 것은 어느 수준 이상의 재능을 평가받지 못하면 성립될 수도 없는 일이다.

건설회사로부터 독립한 사람의 경우, 건축가가 되기 위해서 구곡을 벗어 버리게 된 주된 이유로서는 다음 두 가지를 들 수 있지 않을까.

그 하나는 건설회사 설계부가 모체인 영리조직으로부터의 구속때문에, 건축주의 기대에 객관적으로 응하지 못하는 불만에서 탈출해 보려는 동기, 즉 자주적인 입장에서 건축을 창작하고 싶었던 원망에서일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체질의 건설회사 설계부의 조직에 대해서 별로 질문을 느끼지 못했거나 혹은 자주독립 해보고 싶은 기개나 자신이 없는 사람은 건축가로 전신(轉身)해 보겠다는 생각은 해 볼 수도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전신(轉身)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징은 시공이나 코스트에 대해서는 경험이 풍부하고 또 대외적으로도 세상물정에 아주 밝아서 조직운영에 대한 묘를 훌륭히 살리는 사람이 많다.

다만 본인이 주의해야 할 일은 건축가로서의 프로페션과 비즈니스의 밸런스 감각의 체득이다. 그리고 기술에만 치우치지 않는 창조적 능력, 디자인, 정책력을 연마하는 일일 것이다. 손재주만 믿는 직업적 건축가나 숙물건축가가 되지 않도록 하는 자체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 하나의 동기는 자기의 성격이나 재능이 건설회사란 직장에는 부적합하고 오히려 설계자로서 자립하는 것에서 생의 보람을 찾고자 하는 자각된 사람이다.

이 경우는 인생 코오스로서는 일종의 낭비를 했다고 할 수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재학 중에 있으면서 그러한 선택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사실은 이 글을 쓰는 중요한 목적의 하나가 바로 건축기술자, 건축가를 지망하는 젊은이나 대학의 건축과 학생에게 참고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관공서의 설계조직에서 독립하는 경우는 여러가지 의미에서 유리한 점이 많다.

재직 중에 그 조직 내의 풍부한 자료와 선배들의 축적된 지도력, 비교적 자유로운 연구활동 등이 있고, 또 독립 후의 영업면의 이점이나 인맥에서의 이점은 크다.

다만 이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직장환경, 나쁘게 표현하면 아무리 예산을 사용하더라도 그다지 부담감을 느끼지 않던 안이한 분위기에서 하루 속히 벗어나서 건축가로서 자립하려고 한다면 본인 스스로가 그에 상당하는 각오가 있어야 할 것이며 자기 자신의 재능에 대해서도 나름대로의 자신감이 있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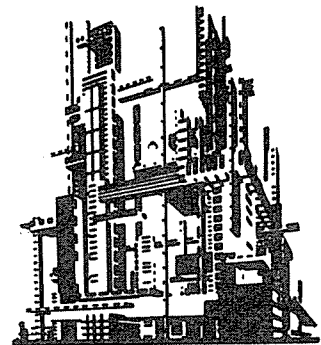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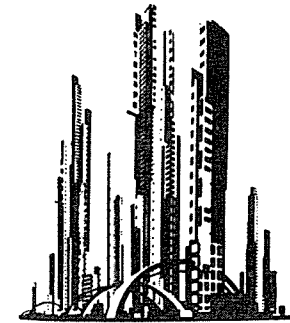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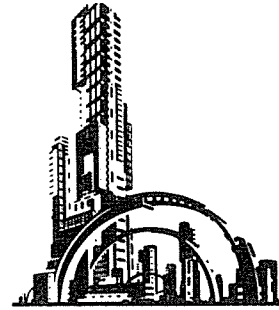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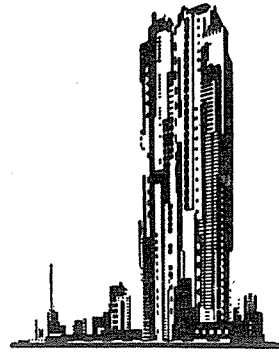
(二) 건축가의 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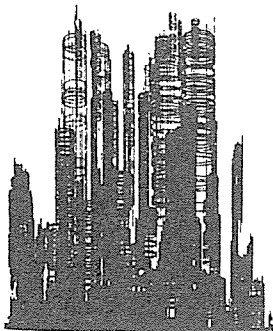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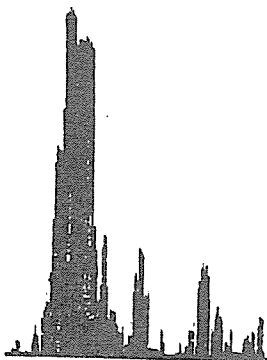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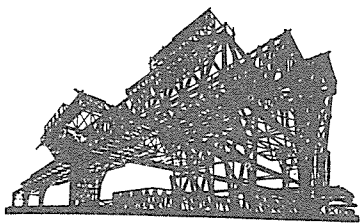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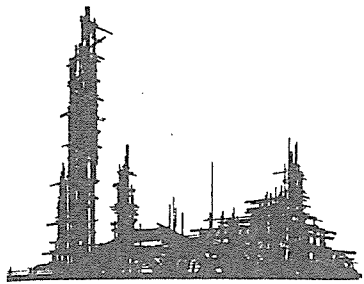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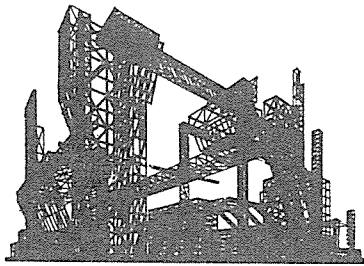
일본의 경우

1 급건축사 등록자 131,255 명
1 급건축사사무소 등록 37,767 개소
이 등록사무소 중 전업사무소는 약 60 %인 22,600 개소
1979. 6. 30 일본건설성통계에 의한. 사무소수와 인구비에 의해서 일본과 미국을 비교하면 일본은 미국의 7.5배에 상당하고 인구 3,000명에 1 사무소의 꼴이 된다.

또 1 급건축사는 인구 900명에 1 명꼴이다.

미국의 경우는 인구 22,000명에 1 사무소, 인구 7,300명에 등록건축가 1





명의 비율이 된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1981년 현재 등록된 건축사는 약 2,000명으로서 인구 2만명에 1명 꼴이다.

미국과 같은 비교적 조건이 좋다고 하는 나라에 있어서도 건축가에 대한 인식은 아직도 대단히 부족하다. 프로페션에 대한 인식이 얇은 것은 물론, 건축가 업무의 실질적인 내용에 대한 무지에 대해서도 건축가들은 개탄하고 있다.

설계자를 단순히 「청사진을 만드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고 있으며 10명의 건축주나 고객 중에서 9명까지가 건설업자와 건축가를 구별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상황은 일본의 처지와 별로 다른 것이 없으나 현재의 일본에 있어서의 건축가수와 대비한 회소가치와 관련시켜 추측해 본다면 좀 과장된 표현이 아닌가 하는 느낌까지 든다.

적어도 미국에 있어서는 1972년에 성립된 건축설계자, 기술자(A/E) 선택법에 의해서 가격으로 인한 부당경쟁으로부터 건축가를 보호하고 있으며, 건축가들도 일본보다는 덤핑행위를 훨씬 덜하고 있는 실태라고 한다.

일본에 있어서 건축가의 직능이 명치(明治) 이후 「서구건축문화의 이입(移入)」이라는 사명으로부터 스타아트(해서항상 그때그때에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들을 안으로 내포하면서도 눈부신 발전을 해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또 그러한 여명기로부터 성장기에 이르는 시기에 있어서는 언제나 건축계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해왔다는 데는 자타가 모두 인식해 온 것이다.

그러나, 오늘에 이르러 이러한 것을 회고해 볼 때 그 성과로서 얻은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확실히 국가사회를 충실케 하는 데에서는 크게 기여했다고 자부해도 좋을 것이다. 이 말을 다른 표현으로 바꾸어 말하면 아이러니컬하게도, 판민건축을 불문하고, 그것은 「노력에의 봉사」라고 하는 숙명성도 피할 수 없었던 것이다.

과거의 사회에 있어서의 정치, 정책하에 경제·법률이 사회기구를 리이드하고 과학·기술이 전자의 목적달성의 수단으로서 중속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숙명에 있었다는 것은 필연적이었다.

그와 같은 사회구조 속에서는 건축가도 기술자, 직인(職人)과 동일한 연장선상에 있는 존재로 밖에는 인식되지 않았을 것이며 오늘날도 다분히 그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민주주의 사상은 건축의 최고 목표를 「인간생활의 행복을 구현하기 위

한 수단」으로서 방향전환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

건축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만족하는 정도, 혹은 그 내용, 또 그 반대인 불만의 누적 형태등은 본인 자체인 건축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주관에 크게 좌우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저히 일률적으로는 말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그리고 건축가 개인의 인격이나 능력에 따라서, 어떠한 계기에 일어나는 현상들에 많은 차이를 볼 수 있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직업으로서의 건축가」, 건축설계사무소를 주관적으로 해서 타업종과 비교하면서 그 특징과 특질을 논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 보람있는 생에 대하여

이 문제는 가장 주관적으로 될 수 밖에 없는 어려운 문제이다. 어쨌든 자기가 좋아서 하고 있는 일이나 건축가라는 그 자체에 만족하고 있다고 말해버리면 너무나 모범적인 대답으로 되어버리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너무나 단순하다는 흠도 있거니와 나아가서는 자신이 열중하고 있는 일에 대한 보람의 강도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또한 「보람있는 생」의 문제는 직업에 한한 것만은 아니다. 직업과 가정, 직업과 경제수입, 직업과 취미, 사회인으로서의 평가, 직업과 인생에 있어서의 시간관계 등등, 직업과 서로 얽히지 않을 수 없는 이들 문제들을 한데 묶어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이것을 판단하고 결론 내린다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그렇긴 하지만 우선 대략 다음과 같은 것은 명언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1. 어떻게 해서라도 건축가가 돼보고 싶다는 의욕과 애착심이 강하지 못할 것 같으면 이걸을 선택하지 말아야 한다.
2. 건축가로서의 자질에 대해서 상당한 자신과 자부심이 없으면 결국에 가서는 크게 실망하게 될 것이다.
3. 강건하다고 할 정도까지는 못되더라도 보통 이상의 건강체가 아니면 고통을 많이 느끼는 직업임을 알아야 한다. 즉 두뇌와 신체를 꽤 불규칙하게, 더구나 동시에 혹사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가 종종 닥쳐 온다.
4. 직업에 대한 사명감, 프로페션으로서의 이념이 필요하다. 고생은 많고 경제적으로는 낮은 평가 밖에 받지 못하는 건축가의 입장! 이러한, 말 못할 입장도 자기 스스로의 이념과 그리고 건축주로부터의 감사의 정에 의해서 「보람있는 생」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다.

□ 직업으로서의 사회적 평가

직업이란 개념에서 말할 것 같으면 건축가를 대하는 일반사회의 인식에 의한 「어렵uhan 평가」 밖에는 기대할 수 없다.

그렇더라도 일단은 문화인, 교향인, 기술자라는 인식에서 평가되고 있고 적어도 건축계 안에서는 아직도 불완전한 대로 지도자적 역할을 인정받고 있다.

또한 건축기술자, 시공기술자에 대한 지도성도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종합건설자가 현저하게 강대해진 오늘날의 현실을 직시할 때, 금후의 사태에는 예측할 수 없는 그 무엇이 도사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너구나 기나긴 과거의 역사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낮은 경제적 평가와 아울러 압박당한 보수에 의해 건축설계사무소의 존재 그 자체마저 위태로운 처지에 놓여 있다. 그러면 어찌서 그러한 현상에 놓이게 되었느냐 하는 데 대한 사견을 말해 보겠다.

1. 정치, 경제에 대한 건축가의 관심도가 낮기 때문에 영향력이 저조하다는 것. 즉 정치·경제문제를 등한히 하는 건축가의 태만성.

2. 창조성, 예술성, 문화성, 사회성과 같이 건축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 요소가 건축주로부터 받는 보수의 몇가 속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평가를 주장할 못하고 있다는 것——이것은 일본인의 문화성과 민도(民度)에 관한 것이 아닐까 한다.

3. 금전문제에 대한 주장이나 집착을 야비한 것으로 생각하는 건축가의 그릇된 습성——이것을 무사기질이라고 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직인기질이라고 하는 것이 좋을까? 혹은 「질척배장」이라고 하는 것이 좋을까? 어쨌든 자승자박이란 말이 머리속에 떠오른다.

4. 질이 나쁜 건축가가 스스로 자신을 깎아내려서 평가 해 온 흔적이 있다. 사회에 대한 영합행위일까? 아니면 경쟁의 한 가지 수단일까? 혹은 자기 자신의 조잡한 능력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했을까? 이러한 인과응보에 의한 악순환으로 말미암아 여타의 우수한 건축가가 지원하던 원치않은 간에 휩쓸려서 골탕 먹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5. 전문가능력에 있어서 미연한 건축가, 설계사무소가 파생함으로써 건축기 전체의 사회적 평가와 업무의 경제적 평가를 부당하게 저하시키고 있다.

6. 사회의 현실을 무시한 설계사무소의 난립에 따른 경합의 결과도 그 이유의 하나이다.

□ 직업과 고객의 관계

「참된 마음으로 참된」 건축을 창조하는 경우, 거기에는 복잡하고 고도의 전문능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전문능력을 심신을 다해서 발휘하는 데에 바로 건축가로서의 보람이 있고 「일에 대한 재미」와 함께 「고통」이 수반된다. 이러한 「보람」과 「재미」와 「고통」이 얼마나 크고 또 깊다는 것은 본인 외에는 아무도(건축주까지도) 상상도 못하는 것이다.

그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고 건축주로부터 만족과 감사의 정을 얻어낼 때에 건축가로서의 긍지를 가슴속 깊이 느끼게 된다. 그리고 그 경지에까지의 경과와 성과에 의해서 건축가로서의 신뢰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와 같은 좋은 결과만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건축주 중에는 「인간만사는 황금이면 여의형통」이란 고정관념을 신조로 하는 사람이 있어서 설계에도 이해를 갖지 못하며, 시공자한테도 냉담한 인물이고, 정도의 차는 있을지언정 일부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 금전문제 외에도 매사에 대단히 아집이 강한 건물주와 부딪치는 일도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경우에는 집념과 열의를 가지고 정성껏 설득을 해도 통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이와 같은 골치아픈 일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트러블이 많이 발생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는 사례가 많은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즉, 건축가로서 자신과 긍지를 가지고 업무에 열중하기 위해서는 건축주와 건축가의 신뢰관계가 중요한 조건으로 되는 것이다. 또 건축주와 시공자, 건축가와 시공자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동일한 말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업무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 예측되는 때는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수탁을 사퇴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 직업과 가정의 관계

특정자본을 배경으로 하는 극소수의 건축가를 제외하고 일반건축가는 이른바 자유직업인이기 때문에 아이러니컬하게도 경제적 기반이 박약한 것은 면할 수 없다. 현실적으로 의사나 변호사와 비교해서 소득격차가 크게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자주독주(自主独走)의 길을 택한 본인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그 책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런대로 최저한의 조건은 확보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지 못해서야 가장으로서의 체면이 말이 아닐 것이다. 원래 건축가라고 한다면 건축가란 그것으로 「밥」 문제는 해결되어야 하는데 만일 「밥」에도 곤란이 따른다면 그 건축가에게 「家」자가 우스꽝스럽고 썩스럽고 어리석고 한심하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건축가는 프로페션에 속하는 직업이기에 다른 장사와는 달리 다소의 가난 짚은 눈감아 주지 않을까 하는 구차한 자기변명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밀친 없는 지혜를 짜내어 보련다.

1. 시간이나 수입이 불특정한 가장과 2인3각의 인생길을 걷기 위해서는 현명하고 온순하고 매사를 오밀조밀하게 꾸러나갈 줄 아는 아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당신은 그러한,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여성을 배필로 만날 자신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2. 돈벌이에 전연 의욕이 없는 가장을 대신해서 남성 이상으로 특수한 기능을 소유한 수완 있는 여성한테 가계를 떠맡기든지 아니면 본인의 일에 풀능하게 협력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헌부인을 맞이하지 못할 것 같으면 오로지 자신의 사생활을 검소강건하게 꾸러나가야 할 것이다.

자녀들을 많이 두지 말 것이며, 온 가족들이 모두 무병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있어야 할 것이다.

3. 가족들과의 화목이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본인은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복잡한 일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한 점을 언제나 염두에 두고 때로는 「일」과 떨어져서 「가족과의 시간」같은 것을 꼭 가져야 한다.

4.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처자들에게도 프로페션에 대한 이해를 얻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한 이해를 얻어냄으로써 가장으로서의 존경도 기대할 수 있으며, 또한 비록 경제적으로는 윤택하지 못하더라도 그 원인이 반드시 가장의 무능 때문만은 아니라는 이해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5. 이상과 같이 말한 내용에 대해서 이것을 단순한 농담에 불과하다고 웃고 마는 사람이 있다면 특별한 에리트가 못되는 한 그 사람은 상당히 천박하고 경솔한 자라고 나는 말하고 싶다.

평범한 일상적인 문제라고 덮어 두어서는 안된다. 도리어 일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의치 못할 때는 심각한 고통거리로 되는 것이다.

확고한 자신이 없을 것 같으면 건축가라고 하는 직업을 경원(敬遠)하는 것이 무난하다. (*)